



벌써 짧은 옷차림... 두렵다 '다한증·액취증'

# 불쾌한 땀·냄새 잡고 올 여름은 자신있게

노출의 계절이 찾아오면서 벌써 짧은 옷차림에 낯선 팔과 다리를 뽐내며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낯선 몸매인데도 불구하고 소매 없는 옷을 꺼리고, 여름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지는 액취증과 다한증 때문이다.

특히 사람들 많이 접촉하는 직장이나 결혼을 앞둔 여성이라면 여름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은 사춘기의 민감한 시기에 주위 사람과의 접촉을 꺼려 따돌림을 당하기 쉽고, 자신감을 잃어버려 심하면 정서장애는 물론 대인공포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땀이나 안내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남들보다 많은 땀을 흘리는 것일까?

### ◇다한증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땀이 계속 흘러나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이다. 부위에 따라 손바닥, 겨드랑이, 발바닥, 얼굴 다한증으로 나뉜다. 주로 손, 발바닥, 겨드랑이, 얼굴 등 다양한 부위에서 땀이 나고 특정 부위에서 특히 많은 땀을 흘리면 다한증일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예방법은 없어 증세에 따라 약물치료 또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다한증은 원인에 따라 1차성과 2차성 두 가지로 나뉜다.

다한증의 90%를 차지하는 1차성은 특별한 원인 질환없이 자율신경인 교감신경이 갑자기 과장된 땀샘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나타난다. 반면 2차성은 갑상선 질환, 암, 비만, 뇌 질환 등 다른 질환이 원인으로 주로 몸 전체에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원인 질환을 발견해 치료해야 증세가 호전된다.

다한증은 증세와 치료목적에 따라 약물, 주사, 수술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돼 효과를 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약물요법은 땀을 흘리는 부위에 약물을 바르거나 먹는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다. 주로 열화알루미늄 성분의 약물이 함유된 도포제를 주 3회 정도 많이 사용하는 부위에 바르면 땀샘이 막혀 땀이



문승호 다정외과 원장이 겨드랑이 안내 때문에 고생하는 여성의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하는 리포셋 시술을 하고 있다. 이 시술은 부분 마취 수술이 가능해 환자의 부담이 적고, 작은 부위를 절개하므로 흉터 걱정이 없는게 장점이다.

## 다한증 - 증세·목적 따라 약물·주사·수술 등 치료법 달라져

## 액취증 - 유전확률 50%, 아포크린 땀샘 제거로 근본적 치료

적게 흐른다. 간편하지만 임시방편이어서 계속 반복 치료해야 효과가 유지된다.

수술을 할 경우 땀의 분비를 담당하는 가슴 속 깊이 자리잡은 흉부 교감신경을 수술로 잘라낸다. 다른 치료법에 비해 효과가 확실하다.

수술은 양쪽 겨드랑이에 지름 2mm인 가느다란 내시경을 넣어 가슴 속의 교감신경을 직접 보며 내시경 끝에 달려있는 전기메스나 레이저로 교감신경을 잘라낸다.

수술시간은 10~20분 정도.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별다른 흉터도 남지 않으며 재발하지 않아 걱정받고 있다. 그러나 전신마취라는 부담이 있으며 수술 뒤 많은 환자들이 수술 부위 대신 가슴, 엉덩이 등 다른 부

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보상성 다한증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단점이다.

### ◇액취증

안내는 남녀 구별없이 생기며 부모 중 한 사람만 심한 안내를 풍길 경우에도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은 50%나 된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몸을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하고 땀을 억제하는 약제나 살균 작용의 약용비누, 연고 등을 발라 예방할 수 있다. 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파우더 등을 뿌려 겨드랑이를 건조하게 유지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겨드랑이 털을 제거해 땀이 마르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법이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땀이 생산되는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전의 수술법은 겨드랑이에 아포크린 땀샘이 분포된 부위를 모두 잘라낸 후 껌매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흉터와 피부가 당기는 부작용으로 현재는 다른 방법이 사용된다. 즉 겨드랑이 피부부를 조금 잘라 피부 밑 조직 부위에 분포한 아포크린 땀샘과 모근을 제거해 다시 껌매다. 재발률은 8~10%정도다.

최근엔 지방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초음파지방흡입이나 레이저나 절연체 등을 이용해 흉터를 크게 남기지 않고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하기도 한다.

〈다정외과 문승호 원장〉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중년 이후 무릎 통증 자가진단·치료

## 관절염 환자 부종 있을때 걷기운동 삼가야

중년이후 외상과 관련없이 자연적으로 생긴 무릎 통증은 요통과 더불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다. 40세 이상의 환자들이 무릎 통증이 있을 경우, 자가진단법과 치료 방법을 광주21세기병원 오선종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우선 일측성 또는 양측성 여부를 확인한다. 좌·우측 중 한쪽만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반대측은 완전히 정상이라면 퇴행성보다는 반월상 연골 손상 등의 가능성이 많다. 특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뒷부위의 퇴행성 변화 및 파열이 흔하다. 이러한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MRI로 확인이 가능하며 간단한 관절경 수술로 치료 가능하다. 만약 한쪽이 더 아픈곳이 있다면 양측성 이면 대개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은 거의 전부 내측 관절면이 좁아지므로 'O'형 다리가 되고,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증상이 동반된다.

둘째, 관절부종 즉 관절이 붓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퇴행성 관절의 경우 급만성 악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염증성 관절염 즉 부종이 없는 소위 '마른 관절' 상태이다. 이 경우에는 걷기, 가벼운 활동 등이 권장된

다. 관절이 붓는 즉 염증성 관절염은 심하면 관절천자 후 관절액이 투명하고 감염의 징후가 없을 때는 스테로이드나 히루안산 제제, 또는 PRP(platelet-rich plasma) 제제 등을 관절 내에 주입할 수 있다. 부종이 있을 때는 걷기, 운동 등을 일정기간 삼간다.

셋째, 구체적인 통증 유발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즉 무릎의 전면, 대퇴-경골 관절면 부위, 또는 무릎 뒤쪽의 근육부위 중 어느 곳이 아프는지 확인한다. 전면에 통증이 있는 경우 슬개골(무릎뼈)을 누르면 대퇴-슬개 관절면의 통증과 소리가 동반될 수 있다. 이 경우 좁은 좌석에 무릎을 굽힌 채로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같은 사항이 모두 동반되어 있다면 슬개골 연골 연하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광주21세기병원 오선종 원장〉  
/정리=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 건강관리협 광주전남지부

####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이균익)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가족, 고엽제의중, 참전유공 등 본인과 유·가족이며 보훈청의 선정자 또는 희망자(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검진기간은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이며 검사항목은 체성분·스트레스·흉부X-선검사·B형 간염·관절염 검사·중앙표지자검사·혈액질량검사·간기능·심혈관계질환·당뇨·신장질환 등 40여개 항목이다.

#### 국립나주병원, 중학입학검정

#### 전과목·과목별 합격자 배출

국립나주병원(원장 배안)은 환자를 대상으로 중·고등 검정고시반(키움학교)을 운영, 지난달에 시행된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서 전과목 합격자 및 과목별 합격자를 배출했다.

국립나주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정실질환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중·고등 검정고시반을 운영(현재 12명 수업 중)하고 있다.

올해는 13명이 응시해 중학 입학자격자 1명(중학 입학자격), 과목별 합격자 5명을 배출했다.

이번에 중학 입학검정고시에 합격한 S씨(여·67)는 정신장애 2급으로 입원생활을 하며 배움에 대한 미련을 간직해 오다 지난해 4월부터 준비한 끝에 꿈을 이루게 되어 다른 입원환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합격 소식을 전해들은 S씨는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쁘다. 고입반에 가서도 열심히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암센터

#### 고흥서 '찾아가는 의료봉사'

화순전남대병원(원장 국 훈)과 전남지역암센터(소장 정익주)는 조기검진의 일환으로 오는 10일 고흥군 과역면에서 '찾아가는 진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산업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영상의학과 교수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과역면 노일리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오전 10시부터 현지 고령노인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활동을 펼친다.

의료봉사단은 성인병 검진 및 복부초음파 검사,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검진차량을 이용해 주민 거주 현장에서 시행함으로써 '찾아가는 진료'라는 의미를 한층 뜻깊게 할 예정이다. 고흥군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 활동은 올해가 6번째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214-중-21551 광고

나이가 들에 따라 생기는 안검의 노화 현상인 안검 피부의 처짐, 하수 및 외안각부의 잔주름 등은 피할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또 안와지방이 불거져 나오면 이른바 축 늘어진 안검 변형이 생긴다. 또 기능적으로 안검열이 내려와 시야가 좁아지고 거근 근막의 약화로 안검하수를 초래할수 있으며 노인성 안검외반증 같은 증상을 일으킬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을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수술을 안검 성형술이라고 한다. 수술후 미용적인 교정뿐만 아니라 축 쳐진 눈꺼풀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시켜 줌으로서 기능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

특히 남성의 상안검 성형술은 상안검의 기능적인 문제 즉 안검하수, 시야장애, 눈썹하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원한다. 수술전 검사로는 먼저 시력을 체크하고 안구돌출, 안구운동, 각막이상 등의 안구의 이상유무를 먼저 검사해야 하며 유루누선이나 누소관, 누점등의 이상 등

의 누관계통 이상이나 안륜근의 이상, 눈썹의 이상, 하수의 유무, 안검 피부의 과잉도, 피부의 성상, 피부 병변의 유무, 좌우의차, 반흔의 유무등과 함께 안와 지방의 양과 돌출도, 돌출부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술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1. 이마의 하수정도
2. 상안검과 하안검의 과도한 피부의 주름양과 정도
3. 양쪽 안검에서 돌출된 안와 지방의 양과 위치, 특히 상안검의 내측지방과 하안검의 외측지방.

4. 상안검과 하안검에서 안륜근의 양과 모양
5. 안검 피부에서의 색소침착과 노인성 및 퇴행성 변화, 안와골의 형태 눈물샘의 하수 정도 등이다.

# 상안검 성형술

수술은 쌍꺼풀선 없이 처진 피부만 제거하는 것과 쌍꺼풀선을 만들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대개 남자들은 쌍꺼풀선 없이 자연스러운 것을 원하고 있으며, 여자들은 쌍꺼풀선을 만들면서 피부 제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동양인의 쌍꺼풀 높이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6~8mm 정도이며 10mm이상 넘지 않도록 도안 하는것이

좋다. 수술후 12~24시간은 약간 압박 하면서 얼음 주머니에 의한 냉찜질을 수술 부위 반상 출혈이나 부종을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세안은 7일정도 지나야 하며 눈화장도 7일 이후는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화장은 2주후에 하는것이 좋다. 무엇보다 수술전 환자와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작용으로는 상안검 피부를 과다하게 제거하면 상안검외반증이 생기며 양측 상안검 피부 제거를 다르게 하게되면 비대칭이되며 상안검 피부 제거한 부위가 염증이 오면 반응이 생긴다.

(김영길 성형외과 원장)



김영길 성형외과의원  
☎ 062-227-3777 무등극장 앞

성형외과 김영길